

[주]탐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064)745-8884

漢拏曰乘 제8921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8월 9일 금요일(음력 7월 9일)

제주서 '생활임금제' 현실화되나

제주지역 임금수준·노동시간 등 상대적으로 '열악' 1기 노동정책 기본계획 '윤곽' ··· 4개 목표 등 담아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제도 마련 등은 과제로

생활임금제 정착과 민간분야 확대 계획 등이 담긴 노동정책 기본계획 이 본격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한 실행력 확보와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제주 도청 삼다홀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 다. 용역 수행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광표)가 맡았다.

용역진에 따르면 제주도 임금노동 자들의 2018년 상반기 평균임금은 228만원이며, 시간당 임금은 1만 3363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각각 16위, 14위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또 장시간 노동자의 초과노동시간에 따른 임금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낮은 초임임금과 낮은임금 상승률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17.7%로 전국 6위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27.4%로, 많은 비정규직자들이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진은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1 기(2020~2024년) 노동정책 기본계 획의 윤곽을 그렸다.

정책 목표는 ▷노동취약계층 보호 ▷모범사용자의 책임 강화 ▷노동행 정 및 노동거버넌스의 구축 ▷고용 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 4가지이며, 이를 토대로 17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정책과 신설 및 노동전문관 채용 ▷비정규직지원센 터의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 체불임금 제로를 위한 노동중재기구 설치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이 사제 도입 ▷공공부문 52시간제 안 착과 워라벨 실현 ▷표준근로계약서 보급 등이 제시됐다.

주목되는 사업은 ▷생활임금제 정 착 및 민간부문 확대 ▷공공기관 성 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이 있다.

제주지역 생활임금은 올해 시간당 9700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지만, 민간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진은 생활임금제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외에도 민간위탁사업장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내년 사업 검토 후 2021년부터 본격 설치·운영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지역 내 남 녀 임금격차 해소가 주요 목적이다. 서울시가 올 하반기 전국 최초로 도 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기도 했다. 용역진은 오는 2021년 타당성 연구용역 후 2022년 운영하는 계획 을 내놓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 거해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노동이 존중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기 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증 기준을 맞춰야하는 부담감에

신청을 꺼리는 것 같다"며 "확대를

위해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

기준에 관한 내부시설 신·개축비용

및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오은지기자



8일 저녁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특설무대에서 열린 24회 제주국제관악제 개막 공연에서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이 '윈드오케스트라를 위한 3개의 제주민요'를 연주하며 관악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오는 16일까지 9일 동안 도내 곳곳에서 이어진다. 이상국수습기자

"금빛 바람 맞으러 문화피서 떠나요"

24회 국제관악제 어제 개막 9일간 관악 공연과 콩쿠르 15일엔 광복절 경축음악회

제주국제관악제의 시작을 알린 건 제주민요였다. 이동호가 지휘하는 제 주도립 서귀포관악단이 우리 귀에 익은 '너영나영' 선율 등이 녹아든 고창수 작곡 '윈드오케스트라를 위 한 3개의 제주민요'를 연주하며 24 회 축제의 막을 올렸다.

8일 저녁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막 공연은 클라리넷 주자 조 성호, 카운터테너 이동규, '트럼펫의 파가니니'로 불리는 세르게이 나카 리아코프의 협연이 더해지며 열기를 뿜어냈다. 마지막 순서엔 제주도립 제주·서귀포합창단까지 출연해 '살 짜기 옵서예', '이어도'등 제주 빛 깔 음악을 또한번 선사하며 제주에 서 사반세기 가량 이어져온 국제관 악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일 시의 성제성을 드더었다. 올해 제주국제관악제는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이달 16일까지 9일동안 계속된다. 14회째인 제주국 제관악콩쿠르를 합쳐 출연 인원만 25개국 4200명이 넘는다.

9일에는 제주 소재 관악 창작곡을 초연하는 '오늘의 관악곡'(오후 3시 문예회관), 스페인에서 온 최정상 금 관5중주단 스패니시 브라스 창단 30 주년 기념 공연(오후 8시 문예회관) 이 잇따른다. 마에스트로 콘서트는 10일(오후 8시 문예회관)과 14일(오

광복절인 15일 오후 8시 탑동 해 변공연장에서는 경축음악회가 있다. 제주국제관악제 연합관악단, 시민연 합창단이 안익태의 '한국환상곡'을 준비했다. '해녀와 함께하는 관악제' 장소는 고산, 대평, 도두, 성산 등 4

후 8시 문예회관) 두 차례 마련된다.

곳으로 늘렸다.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이 인정한 국제관악콩쿠르는 역대 최다인 258명이 참여해 9일부터 경 연에 나선다. 이번에는 트럼펫, 호른, 테너트롬본, 금관5중주 등 4개 부문 에 걸쳐 경연한다. 제주국제관악제는 16일 오후 8시 제주아트센터에서 제 주도립 제주교향악단과 호흡을 맞 추는 관악콩쿠르 입상자 음악회로 막을 내린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참여 저조

검역본부, 인증실태 조사 결과 56곳 신규 인증… 제주 1곳뿐

농장동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동 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운영되 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동물복지 축 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 조사 결과 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신규 인증받은 농장은 총 56개소로, 지역별로는 전 라도 31개소, 충청도와 경상도 각각 7개소, 강원도와 경기도 각각 4개소, 인천 2개소, 제주는 1개소였다. 이에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6.6% 증가 한 총 198개소로 늘어났으며, 축종별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1.7%, 육계 3.8%, 양 돈 0.2%, 젖소 0.1%로 조사됐다. 지 역별로는 전라도가 42.9%(85개소) 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24.7% (49개소)로 뒤를 이었다.

도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농가는 1300여곳으로, 현재까지 인증된 곳은 4곳(산란계 3, 젖소 1)에 그친다.

도 관계자는 "사육시설·밀도 등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